

독서문화 이끄는
영원한 현역 출판인



독서지도 우수교사와 책을 많이 읽는 학생들을 선발 시상하는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 '독서대상'이 오는 12월로 10회째를 맞는다. 독서대상은 매년 120~130명의 독서지도교사와 학생이 상을 받아 올해까지 1,272명의 수상자가 나온 대규모 독서관련 시상제도. 독서대상은 팔시받던 독서지도교사가 이젠 스카우트 대상이 될 만큼 초·중·고등학생 독서문화의 질과 양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독서대상을 만들어 오늘까지 끌고 온 김낙준(72·현 금성출판문화재단 이사장) 위원장은 지금 뿌려놓은 씨앗이 자라 이 나라의 주역이 되면 책 안 읽는 국민이라는 오명을 벗고 독서강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10주년의 의미를 강조했다.

“독서대상을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독서지도를 하면 학부모나 교장으로부터 항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성적이 떨어질까봐 책을 못 읽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죠.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굳게 닫혀 있던 학교도서관의 책장문이 열렸고 책꽂이의 싸구려 덩핑판 책들이 수준 높은 책들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단지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녀들의 독서를 부정적으로 보기까지 했던 부모들이 오히려 책을 읽게 하기 위해 도서관 대출관리 자원봉사를 맡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책을 수급하는 방법 또한 바뀌었다. 과거에는 수동적으로 정부의 지원금만 기다렸다가 그 금액 내에

서 책을 구입했고 그 예산이 적다보니 구입하는 책의 양이나 질이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학부모나, 동창회 등 책을 기증하는 곳이 많아졌고, 학교에서도 학부모와 함께 바자회나 일일차집을 여는 등 적극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책을 모으고 있다.

“주말에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등 학교도서관이 지역의 공공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출판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쳐 그동안 입시에 밀려 공백상태로 남아 있던 청소년도 서 출판시장이 서서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독서대상은 이렇듯 교사와 학생·학교·도서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촉매가 되었다. 특히 부문별 상금을 본인과 소속학교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학교, 교사, 학생이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이 상의 고유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독서대상의 필요성이 제기된 때는 1993년 ‘책의 해’였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을 맡고 있던 김 위원장이 책의 해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1년 내내 책이 있는 현장에서 살았다. 다행히 ‘책의 해’는 가장 성공적인 ‘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뜻하지 않았던 과제를 남겨놓았다.

“한 해 동안 책읽기의 즐거움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한국출판문화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계기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열악한 독서문화의 실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공공도서관은 1,984개였는데 우리는 불과 280여 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공공도서관 한 곳에서 매월 7,000만 원을 독서자료 구입예산으로 쓰고 있을 때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170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김 위원장에게 출판문화에 대한 걱정을 떠나 한국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겼다.

“흔히 국민의 독서력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독서력을 최소한 일본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운동을 계속해야겠다는 싶더군요. 책의 해를 1년으로 끝낼 게 아니라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인식 아래 연중 지속가능한 독서운동을 제안했고, 문화부 역시 그 필요성을 동감해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당시 위원장은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정원식(1994년~2001년) 씨였다.

“말로만 책을 읽자고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책을 읽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고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성장기에 몸에 밴 독서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독서 교육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사업시행 첫해부터 독서대상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김 위원장의 사심 없는 추진력 때문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오직 ‘학생들이 책만 많이 읽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사업 첫해 3억 원을 조건 없이 내놓았다. 지금도 매년 들어가는 1억 원의 상금과 기타 운영경비를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독후감 시상제도가 도서목록을 제시해 특정 출판사의 책을 읽도록 규정하는 데 반해 김 위원장은 그런 단서를 전혀 달지 않았다.

독서대상은 심사 또한 엄정하고 까다롭다. 1·2·3차 심사와 함께 현장실사를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 심사와정을 ‘권위 있고 품위 있고 자랑스러운’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저희 실사위원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오전의 경우 반드시 11시에는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이동시간으로 잡아 쓸데없는 청탁과 접대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5일에 걸쳐 16개 권역별 심사대상 학교를 다니다보면 나중에는 실사위원들 입술이 부르틀 정도가 되죠. 그래도 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도 맡고 있는 그는 책을 안 읽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싶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누구보다 출판인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독서량이 적은 것은 출판인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유익하지 않은 책이 없었지만 과연 그 유익한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변하고 있지만, 독자가 읽고 싶어하도록 책을 만들기보다 자기가 만들고 싶은 책을 출판해 온 게 사실입니다.”

출판계를 향해 자성의 메시지를 보내는 김 위원장의 열띤 목소리에서는 영원한 현역의 기운이 감지된다. 그는 12월 5일의 시상상을 앞두고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을 펴내기 위해 기획·편집·제작에까지 아직도 직접 관여하는 열정을 보이고 있었다. ‘책을 만드는 열정’이 자신에게는 삶의 활력소라서 손을 뗄 수 없다는 게 김 위원장의 미소면 답변이었다. 독서대상 시상제도가 앞에서 끄는 것이라면 읽고 싶은 책을 만드는 출판은 뒤에서 미는 것이므로 그 ‘이름’의 중심에 있다보면 피곤한 줄 모른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0월에는 프랑크푸르트를 방문, 도서전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는데 일정의 대부분을 일행과 떨어져 독일문화의 현장을 디지털 카메라로 담는 등 동행했던 젊은 출판인들보다 젊은 역동성을 보였다든 후문이다. ■

취재 신동섭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